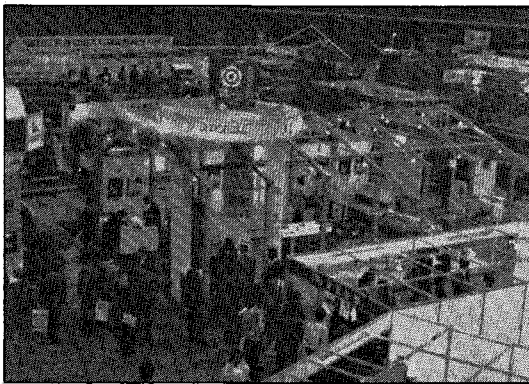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91한국양계박람회 성료 참관자 3만명, 생산자 호응높아



본회가 주최한 '91한국양계박람회가 지난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참관자 3만2백명을 유치, 성황리에 치러졌다.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주관하여 치러진 이번 박람회는 농업분야 중 단일

업종 박람회로는 양계분야에서 처음으로 열려 더욱 뜻깊은 의미를 남겼다.

양계산업의 미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박람회 행사는 전시, 홍보, 양계인대회를 각각 개최하여 양계인 및 일반 소비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행사로 구성하여 참여도를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박람회의 총 예산규모는 2억4천백만원이었는데 이중 1억8천8백만원을 자체충당하였고 정부가 5천3백만원을 보조하였다.

생산자들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자동화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일반 소비자들도 계란 및 닭고기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인식하였다.

기자재전시에 참여한 업체는 총77개사로 사용부스는 156개였는데 △사육시설 및 기자재 32개사 △계분처리 및 가공 6개사 △양계산물처리 및 가공 12개사 △종계 9개사 △사료 및 약품 10개사 △기타 8개사로 분류된다.

또한 홍보행사로 실시된 닭고기·계란 소비홍보 포스터 현상공모에는 73점이 접수되었는데 최우수상 당선작은 없으며 우수상에 정진학, 전용술(목원대)의 공동작품이 차지하였고 특선에 5명, 가작 2명, 입선에 18명이 입상하였다.

- 우수상 : 정진학·전용술(목원대)
- 특 선 : 한재식(서울), 김희선(숙대), 임성철·하성울(목원대) 강갑진(건국대)
- 가 작 : 김윤경(성균관대), 박호영(경기대)
- 입 선 : 오경혜(서울), 문영화(경성대), 양원규(한남대), 한상순(한남대), 김기찬(대전), 손성태(대유공전), 박무건(마산한호전문대), 이정희(한남대), 김철희·박희용(대전), 최진영(한남대), 조장호(한남대), 임상만

(한남대), 이강혁(서울), 전영주(건국대), 성승규(건국대), 김상욱·이도경(한남대), 김용승·장병문(한남대), 강동권(경기대), 김승태·송문용(배재대)

닭고기요리솜씨대회 입상자는 최우수상 백순희(대전)씨가 만든 닭살인삼튀김이 차지하였다.

- 최우수상 : 백순희(대전)
- 우수상 : 권선희(서울), 배명자(부산)
- 개발상 : 유명근(전북)
- 솜씨상 : 박정미(서울)
- 영양상 : 이상숙(광주)
- 조리과학상 : 김순이(서울)
- 장려상 : 김연심(광주), 양순희(부산), 이문자(충북), 소병숙(전북), 정은옥(광주), 이추자(제주), 김인순(서울), 이정순(인천), 홍미자(서울), 방종만(서울)

목장이전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에 조치 건의에 대한 회신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개정

재무부가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 및 낙농, 양돈협회가 이에 대한 철회요청 탄원서를 경제기획원 및 농림수산부에 제출(월간양계 91.10월호 176페이지참조) 회신을 받았다.

회신내용은 당초에는 「목장이전시의 양도소득세 면제제도」가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92년 이후에도 「목장이전시의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를 계속하여 적용하되 그 적용요건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목장이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로 되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67조의11(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67조의11(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① 국내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①10년 이상 ...
2.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5년 이내
3.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3. 5년 이내
③, ④(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결의대회 개최

축산관련 9개 단체 공동으로

본회를 비롯 축산관련 8개 단체는 지난 10월15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축산물 수입개방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UR농축산물 협상에서의 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개방결정을 저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에 우리 축산농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줌과 동시에 국내 양축농가는 물론 범국민적으로 수입개방반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단체는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로 9개 단체이다.

결 의 문

전국의 100만 양축농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축산관련 9개단체는 곧 재개될 우루과이 라운드 농축산물 협상에서, 선진농업국 주장에 근거한 주요 축산물의 완전개방 결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공동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이번 UR 농축산물 협상에서 반드시 쌀과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이 N.T.C 품목에 포함되도록 끝까지 협상하라.
- ▲국내 사육기반 붕괴를 가져오는 과도한 축산물 수입정책을 즉시 중단하라.
- ▲사료,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관세를 조속히 면제하라.
- ▲생업형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여 양축농민의 사기를 적극 진작하라.
- ▲한국마사회 이관을 철회하고,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확실히 제시하라.

건 의 문

그동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축산물 협상에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축산업의 비교역적 기

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특히 쇠고기 등 주요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한 진전상황을 보면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쌀을 포함하여 주요 축산물도 비교역적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여 예외없이 시장개방을 해야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우리 양축농민들은 그래도 축산만이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자부하며 정성을 다해 길러온 소, 돼지, 닭 등의 사육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속에서 정부의 농축산물 협상진행을 주시해오고 있다.

오늘날의 축산업은 단순한 비교우위론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국민의 귀중한 식량산업이다.

더구나 최근의 육류수요가 미처 생산이 이를 뒤따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농촌에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가장 확실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농촌산업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축산을 지키고 육성한다는 것은 농가소득원을 보장하는 큰뜻 이외에도 국가의 식량자원 확보는 물론 급속한 농촌인력의 타산업 진출에 의한 인구이동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게 하는 농축산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1백만 양축농민은 쇠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와 유제품 등의 급속한 시장개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 두면서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하여 쌀과 주요 축산물의 개방을 반드시 저지하고 개방 유예기간도 충분히 확보해 주기 바란다.

쇠고기는 이미 상당한 양이 수입되고 있어 그 자

급율이 50%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장개방이 결정된다면 국내 사육기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급속한 속도로 농촌 지주산업인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농축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무기화는 물론 국제 식량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때 우리는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축산물의 시장개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아주시기 바라며 국제무역 여건상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내 축산업이 대외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둘째, 축산물의 과다한 수입정책을 즉시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속에서 불가피한 수요부족분만을 충족시키는 제한적 수입정책이야말로 국내 양축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쇠고기의 폭발적 수요는 소득증가와 식생활 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되었다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국내산 쇠고기와의 가격차이가 너무 커서 한편으로 소비가 조장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돼지고기 또한 물가안정으로 수입하고는 있으나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인 점도 고려하여 과잉수입에 의한 국내 축산물가격 하락을 미연에 막고 양축농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성장을 통한 육류의 자급을 달성한다는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축산물 수입에 의한 임시방편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지양해 주기 바

란다.

셋째,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투자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료,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면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미 경종농민과 어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비록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로 징수된 세액이 축산업 구조개선에 투자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에서의 투자가 아닌 양축농민이 부담한 재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생산원가를 낮추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넷째, 전국에는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 축산을 하기위해 영세한 양축농민이 지은 축사의 대부분이 무허가 상태로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배설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단속,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축농민이 정화시설을 하려해도 무허가 건물이라 부대시설에 대하여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올해 애써 마련해준 정화시설자금 42억원을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하지 못한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양축농민들에게 축산의지를 높여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도록 관련법규의 예외 인정 조치를 바란다.

다섯째, 한국마사회는 그 관장부처가 지난해 국회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토록 결정한바 있지만은 우리 100만 양축농가들은 계속해서 농림수산부가 관장토록 바라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의 설립목적인 축산진흥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정부의 농촌과 농촌산업에 대한 확

고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농촌과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과감한 정책전환을 조속히 실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축산기자재 비과세 진정서 제출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각 정당에 제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용)는 본회를 비롯한 11개 축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조치를 관철키 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각 정당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료 및 축산용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정세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헌법재판소에 제기(월간양계 91.9월호 161페이지 참조)해 놓은 상태이다.

이번에 제출한 진정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사회 이관계획 철회 성명서 발표 백만양축농민 서명운동 전개키로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8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국마사회 이관계획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만양축농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지난 10월25일 결정하였다.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로는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

양록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농어민후계자 연합회이며 서명은 각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서

-한국마사회 이관계획 철회를 위한 백만양축농민서명운동에 부처-

그동안 의혹을 불러일으킨 한국마사회의 농림수산부로부터 체육청소년부 이관계획은 정치적 흑막 속에서 마사수익금을 노려 탈법적으로 추진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우리 축산농민들은 더이상 정부와 국회에 대한 도덕적 불신감이 심화되는 불행을 막고 축산업의 활로 모색으로 국민위화감을 방지코자 이관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정부당국에 간곡히 당부한다.

우리 농축산업은 정부의 수입개방정책과 의지부족 때문에 참담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음은 새삼 설명을 요하지 않는 현실이고, 따라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한 실질적 과제임에도 축산진흥기금의 재원인 마사수익금에 눈이 어두워 힘으로 빼앗기식의 한국마사회 이관 추진에 대한 우리 양축농민은 다시 한번 약자의 서러움을 느끼며, 특히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 그릇된 결의에 대해 한없는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의 순리적 해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국마사회의 체육청소년부 이관계획 철회를 위한 백만양축농민 서명운동을 실시할 것을 선언하면서, 기필코 정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우리 농민이 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